

[로스쿨 소식]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중 SKY 출신 93.4%... 상경계열이 30.5%

- 종로학원 분석...SKY 작년보다 3.2%P ↑, 남성 비율 53.6%



<서울대학교 정문>

2022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는 141명(93.4%)으로, 지난해보다 3명(3.2%포인트) 늘었다.

종로학원은 4일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발표를 분석한 결과, 합격자 151명 중 서울대 출신은 100명(66.2%)이며 고려대는 22명(14.6%), 연세대는 19명(12.6%)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밖에 한국과학기술원 6명(4%), 성균관대 2명(1.3%), 서강대와 경찰대 각 1명(0.7%) 순이다.

출신 계열별로는 상경계열이 46명(30.5%)으로 가장 많고, 사회계열(정치외교·행정 등)이

42명(27.8%), 인문계열 21명(13.9%) 순이다. 공학계열은 12명(7.9%), 자연계열은 9명(6%), 사범계열은 7명(4.6%)이다.

성별로는 남성 81명(53.6%), 여성 70명(46.4%)으로, 지난해보다 남성은 7명(3.9%P) 줄고 여성은 5명 늘었다.

정량평가 요소별 합격자 평균 점수는 법학 적성 시험의 경우 60점 만점에 57.97점(일반 전형 58.02점, 특별전형 57.38점), 학업성적은 58.13점(일반 58.15점, 특별 57.82점)이다.

하위 25% 지점의 점수는 법학 적성 시험이 57.13점, 학업성적은 57.66점이다.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올해 7월 24일에 시행된다.

종로학원은 “수험생들은 무엇보다도 정량평가의 핵심이 되는 법학적성시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준비하는 학교에 따라 3월 중에 발표하는 로스쿨 선발 결과를 참고해 지망 대학에 맞춘 서류평가, 학점 관리, 어학 성적, 2단계 면접 등에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연합뉴스)